

# 유동하는 시대의 이방인들, 이주자와 여행자

-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를 중심으로

이 미 림\*

## 차 례

- |                                     |                                  |
|-------------------------------------|----------------------------------|
| I. 탈국경 모티프와 이주자/여행자의 출몰             | III. 김작가인 ‘나’의 상처치유와 글쓰기로서의 여행서사 |
| II. 21세기의 미친한 타자, 탈북청년 ‘로’의 디아스포라서사 | IV. 유령·난민 정체성을 지닌 지구촌 이방인들       |

## 국문초록

탈국경 이동이 일상화된 유동성의 시대에 이방인으로서의 흔적과 타자의 표상으로 주목받는 이주자와 여행자가 유령처럼 지구촌에 출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여행소설, 다문화소설, 디아스포라소설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방인 정체성을 지닌 주인공이 등장하였다.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는 전직방송작가인 ‘내’가 탈북청년 ‘로’의 행적을 쫓아 벨기에와 런던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미아이자 사회

\* 강릉원주대학교 여성인력개발학과 교수

적인 좀비인 ‘증’없는 비존재 로에 공감하고 동일시되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작가라는 입사의례를 통과하는 여정을 그린다. 21세기의 가장 미천하고 비루한 타자로 은유되는 탈북이주자인 로와 한민족 디아스포라 박, 끔찍한 얼굴 때문에 차별받는 17세 고아소녀 윤주와 내가 연대함으로써 난민, 고아, 불법체류자, 디아스포라, 소설가는 이방인 정체성을 공유한다. 어머니와 조국을 잃어버린 로의 아픔과 아내의 안락사에 조력한 박의 고통, 어린 나이에 커다란 불행을 감당한 윤주의 절망이라는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고 환대하는 타자지향적 자세와 소수자적 입장에서 글을 써야한다는 문학적 자세를 작가는 주창하고 있다. 가족을 잃고 자신을 증명할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못한 채 지구 밖을 떠도는 로는 로기완이라는 풀네임과 사랑하는 여성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존엄성과 존재감을 되찾고자 하며, 그러한 로의 고통과 아픔, 슬픔을 역추적하고 추체험하는 과정에서 창작의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지만 21세기의 비극적 인간상인 주인공에게 빙의되고 투사한 작가는 한 편의 장편소설을 완성해 나간다. 살아남아야하는 최악의 인간조건을 지닌 탈북디아스포라의 해맑은 웃음과 대면하고 접촉한 작가이자 소설 속의 화자는 타자의 권리와 상처치유, 자기수련이라는 여행과 이주를 통한 입사의례적 방랑을 마친다. 이주자인 탈북청년과 여행자인 소설가의 지향점과 목표의식은 다르지만 소수적 연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이방인의 타자적 정체성 그리고 인권에 대해 이 소설은 말하고 있다.

주제어 : 탈국경 모티프, 이방인, 디아스포라서사, 여행서사, 액체근대사회, 상처치유, 정체성

## 1. 탈국경 모티프와 이주자/여행자의 출몰

소련의 몰락과 동구권의 붕괴, 1990년대 여행의 자유화, 한소·한중·한베 수교, 글로벌경제 등의 사회적 변화로 국경을 넘는 여행자와 이주자가 많아졌다. 여행문화에 대한 욕구, 교통과 숙박시설의 발달은 현대인을 이동하게 했으며, 자본의 전지구화와 노동의 유연성으로 이주노동자, 난민이 양산되었다. 고향이나 고국에서 정주하지 않고 결혼, 출장, 노동, 연수, 이민, 망명, 여행 등의 이유로 탈국경하는 삶이 일상화된 것이다. 포스트모더니티의 속성인 시공의 응축(데이비드 하비)과 거리의 소멸(앤서니 기든스)은 전세계적인 인터넷망과 유통망에 해당될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인간의 이동<sup>1)</sup>을 가져왔다. 70억의 인구 중 2억이 지구를 떠돌며, 디아스포라적 상황에 놓인다. 국제적 프롤레타리아트들은 법적·도덕적·문화적 타자성과 비국민 즉 난민으로서의 이방인 정체성을 지닌다. 시민의 권리는 정착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었고 고정된 주소가 없고 국적이 없다는 것은 법을 수호하고 법으로 보호되는 공동체로부터 배제됨을 의미했으며 종종 적극적 박해는 아닐망정 법적 차별<sup>2)</sup>을 가져다 주었다. 상호결속의 시대인 고체근대와 달리 유동적인 근대는 결속 끊기, 회피, 손쉬운 도주, 절망에 찬 추격의 시대<sup>3)</sup>로 인간의 유대와 네트워크가 취약해 지고 있다. 세계화된 지구, 강압적으로 개방된 사회의 시민들이 사는 지구는 불평등하게 세계화된<sup>4)</sup> 디스토피아로 종종 평가된다.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액체근대사회는 관계형성이 불가능한<sup>5)</sup> 유목민

1) 이선주, 『경계인들의 목소리』, 그린비, 2013, 180쪽.

2)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역, 『액체근대』, 강, 2009, 23쪽.

3) 위의 책, 194쪽.

4)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09, 161-162쪽.

5) 강요하지 않아도 죽도록 일만 하여 우울증, 피곤, 경계성성격장애를 갖게 되는 '피로사회'(한병철), 거대한 풍요를 이룩한 근대산업사회의 원리와 구조 자체가 파멸적인 재앙의 사회적 근원으로 변모하는 '위험사회'(올리히 벡), 희박해진 혈연, 고용약화, 지역사회의 인연상실, 사회양극화로 인한 '무연사회'(NH무연사회

의 시대이다.

이주자와 여행자에 주목하는 다문화적 변화와 함께 창작소재의 고갈과 글감의 한계에 부딪친 작가들이 국외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으며 취재여행, 창작기금연수, 학술세미나 및 문학대회 참가 등으로 외국전문과 해외거주의 기회가 많아진 것도 이유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외국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여행서사가 대거 창작되었고 통신적·문학지리학적·유목적·정치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난민의 서사 혹은 디아스포라 서사가 최근 문학의 한 추세이다. 익숙한 지역을 벗어나 미지의 세계에서 뜻하지 않은 만남과 원주민의 타자적 응시에 직면하는 여정과 타국에서의 이산생활이란 신산하고 고통스러우며 외로울 수밖에 없다. 소설 속의 여행과 이주는 자발적·유희적·근대적 의미의 이동이기보다는 반강제적인 추방과 탈주로서 정신적·육체적 고뇌를 수반하기에 보보스적<sup>6)</sup>인 디지털 노마드<sup>7)</sup>, 하이퍼노마드<sup>8)</sup>로서의 상류층 여정이 아닌 상처 치유와 현실도피, 생존을 위한 절박하고도 치열한 이동이다.

여행자가 주인공인 여행구조는 정착-떠남-정착(안주-여행-안주) 플

프로젝트팀) 등으로 현대사회를 표현함으로써 여러 학자들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 6) 보보스(Bobos)는 보헤미안 부르주아(Bourgeois Bohemian)의 약자로 세련되고 도회적이며 지적인 도시민인 여행자로서 포스트모던 문화적 공간과 기호 속에서 소비하고 생활하는 디지털 시대의 엘리트이자 자발적인 여행자로서 중산층에 해당된다. - 데이비드 브룩스, 형선호 역, 『보보스』, 동방미디어, 2001, 67쪽.
- 7) 휴대폰과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하며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가는 창조적 행위자들이다. - 조윤경, 「현대문화에 있어서 노마디즘과 이동성의 의미: Attali와 Maffesoli의 논의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제66권, 2006, 327쪽.
- 8) 온갖 권리를 다 누리고 자신의 온갖 번덕을 다 만족시킨 이들은 스스로를 보보족, 가상적 호보라고 생각하며 자기 세계에 틀어박혀 있고 레락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며 코쿠닝(cocooning, 누에가 고치를 짓듯이 가정을 재창조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현상)의 신봉자들로 우주관광을 예약하는 자들이다. - 자크 아탈리, 이효숙 역,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웅진닷컴, 2005, 449-458쪽.

롯인 원점회귀의 순환구조로 이루어짐으로써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이 전제<sup>9)</sup>되는데 비해 이주자가 주인공인 디아스포라구조는 정착-떠남(안주-여행) 플롯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sup>10)</sup>이라는 점이 다르다. 정치경제적 기타 압박 요인에 의하여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으로 모국을 떠난 디아스포라<sup>11)</sup>와 달리 여행자는 여가와 여행이 접목된 이동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소설 속의 여행자는 보보스적 향유나 쾌락적인 휴식의 의미보다는 사회와의 불화나 자발적 소외와 배제, 우울한 내면, 현실도피적인 문제의식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타자성과 존재감의 결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은 마녀프레임<sup>12)</sup>이나 희생양 메카니즘<sup>13)</sup>의 대상이 되어 인권을 유린당하는 벌거벗은 생명으로 규정지어진다. 고향/고국을 떠난 피난민, 망명자, 이주자는 지구화가 생산한 쓰레기 혹은 전 지구적 힘들의 유령이자 화형식에 바쳐질 안성맞춤의 제물<sup>14)</sup>로서 헤게모니의 절합과정 후에 버려지거나 그것으로부터 탈주한 나머지(remainder)<sup>15)</sup>로 재현되고 있다. 이주자, 여행자의 출현은 소설의 공간적 영역의 폭을 넓히는 일이기도 하며, 민족과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국민의 제노포비아,<sup>16)</sup> 혼재공포증<sup>17)</sup>에 직

9) 이미림, 『우리시대의 여행소설』, 태학사, 2006, 30쪽.

10) 서경식, 임성모 외역,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2006, 32쪽.

11) 윤인진,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출판부, 2004, 7쪽.

12) 자본-민족-국가라는 삼위일체를 유지하기 위한 예외상태로 남아있는 마녀라는 존재는 여전히 마녀프레임을 작동하게 하는 원천으로, 이에외적 존재야말로 근대 국가를 위한 희생양이다. 과거엔 여성, 유대인, ‘빨갱이’였지만 오늘날엔 무슬림이고 동성애자이고 이주노동자의 모습으로 현신하고 있다. - 이택광, 『마녀프레임』, 자음과모음, 142쪽.

13) 하나의 희생양으로 모든 가능한 희생양들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인, 아이, 노인 과 같은 약자, 외국인, 타향인, 고아, 명문가 자제나 빈털터리, 장애인, 민족적 종교적 소수파, 성적 범죄자 등이 해당된다. -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1998, 25-38쪽.

14) 지그문트 바우만, 장일준 역, 『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물결, 2008, 124쪽.

15) 존 베벌리, 박정원 역, 『하위주체성과 재현』, 그린비, 2013, 8쪽.

면하는 것이다.

조해진<sup>18)</sup>의 《로기완을 만났다》는 전직방송작가가 탈북디아스포라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며 다문화적 사유와 인권문제, 이주/여행의 의미, 소수자와의 연대, 디아스포라적 삶에 대해 성찰한다. 이 소설은 작가의 분신인 ‘내’가 벨기에 브뤼셀과 영국 런던을 여행하는 표면적 여행구조와 소설 속 탈북청년 ‘로’의 디아스포라구조가 중첩되는 소설 속의 소설 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성, 다양성, 유동성, 타자성에 주목하는 액자형식의 디아스포라 양식<sup>19)</sup>으로 여행자 김작가의 서사와 이주자 로기완의 서사가 교차되어 서술된다. 3년의 시간차를 두고 21세기의 가장 비루하고 남루한 이방인인 탈북청년의 낯설고 이질적인 땅에서의 생존과정을 추적하면서 그의 아픔과 좌절에 공감하고 타자적 체험을 공유하는 작가가 자신의 아픔과 고통도 치유하고 해결하는 《로기완을 만났다》는 유동하는 시대의 다문화사회를 배경으로 21세기 문학에 나타난 비극적 인간상인 이주자를 표상하고 재현하며 소수자들의 연대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 16) Xenophobia(외국인혐오증)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혐오라는 뜻을 지닌 개념으로 특정한 타종족, 타민족, 타인종과는 다르다는 데에 바탕을 둔 정서와 의식과 관련되며, 공동체의 정체성 유지나 자기보존을 위해 타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김세균 외역, 『제노포비아: 세계화시대의 인종갈등』, 문학과학사, 2006, 17쪽.
- 17) 낯선 사람과 낯설에 알레르기적으로 과민 반응하는 것으로, 압도적인 불안감 때문에 촉발되는 정서를 말한다. - 지그문트 바우만, 권태우 외역, 『리퀴드 러브: 사랑하지 않을 권리』, 새물결, 2013, 258쪽.
- 18) 2004년 『문예중앙』으로 등단한 조해진은 『천사들의 도시』(민음사, 2008), 『한 없이 멋진 꿈에』(문학동네, 2009), 『아무도 보지 못한 숲』(민음사, 2013) 등의 장편 소설을 발표했으며 『로기완을 만났다』(창비, 2011)로 제31회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녀의 문학은 노바디, 유명 정체성을 지닌 타자들을 주로 그리고 있다.
- 19) 세계한국어문학회 비평술길, 『디아스포라와 한국문학』, 역락, 20112, 312쪽.

## II. 21세기의 미친한 타자, 탈북청년 ‘로’의 디아스포라서사

2010년 12월 7일 화요일부터 12월 30일 목요일까지 24일간의 일정을 기록한 《로기원을 만났다》는 소설제목처럼 시사잡지에 실린 탈북자에 관한 기사 때문에 여행까지 하게 된 작가가 탈북청년과 자신이 어떻게 관계 맺게 되는가의 여정을 보여준다. 나는 “너무도 외로웠던 한 사람”인 미지의 탈북이주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브뤼셀을 여행한다. “처음에 그저 이니셜 L에 지나지 않았던” 로가 여행을 끝마칠 즈음엔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울 이미지(mirror image) 혹은 인도 우파니샤드의 진리처럼 ‘나는 곧 너이다’라는 삼쌍둥이나 도플갱어 같은 타자적 존재<sup>20)</sup>가 되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무국적자’, ‘난민’, ‘미등록자’, ‘불법체류자’, ‘유령’, ‘이방인’으로 표상되는 이주자는 특정한 법이나 정치적 관습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다는 것<sup>21)</sup>을 의미하며, 목숨만 붙어있는 이중적 배제 즉 예외상태에 처해진 존재<sup>22)</sup>이다.

1987년 5월 18일 함경북도 온성군 세선리 제7작업반에서 태어난 로는 159cm, 47kg의 마르고 왜소한 몸을 지닌 20살의 탈북청년이다. 탈북후 중국 연길의 골방에 숨어 지낸 그는 목욕탕 청소와 노래방 도우미로 일 하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시신을 판 돈으로 벨기에까지 오게 된다. 철저한 국외자(outsider)이자 영원한 방랑자인 이방인은 어떤 집단의 핵심에는 들어서지 못하고 그저 변방만을 어슬렁거리는 경계인(the marginal man)으로서 의심의 눈총을 떨어내지 못하는 처지<sup>23)</sup>에 놓인다.

20) 이미림, 앞의 책, 36쪽.

21) 리처드 J 번스타인, 김선옥 역,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 아모르문디, 2009, 131쪽.

22) 최성희, 「폭력의 기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과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새한영어영문학』 제52권, 새한영어영문학회, 2010, 77쪽.

23) 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을 위한 이론적 정초」, 『한국사회학』 제38집, 2004, 21쪽.

희망이 없는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브뤼셀까지 온 로는 북한-중국 연길-칭따오 공항-홍콩-독일 베를린-벨기에 브뤼셀-영국 런던까지의 긴 여정 동안 국경과 입국심사대와 같은 경계선에서 탈주할 때마다 가슴 졸임과 불안감, 공포와 삶의 의지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다.

법적·정치적 지위나 도덕적·심정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증’없는 이주자는 무국적 상태의 비인간 즉 유령처럼 존재감이 없다. 불어와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로는 낯선 타국에서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가득차 ‘벨, 기, 에, 브, 튀, 썰, 벨, 기, 에, 브, 튀, 썰……’이라는 이질적 단어를 반복해서 발음해 본다. 호스텔에서 청소하는 흑인여자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서 ‘경찰’이라는 말밖에 알아듣지 못하는 로는 지배권력언어를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타자화되는 폭력을 겪는다.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유리알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인족의 후손 같은 나라”에서 야만적 타자로 취급받는 로에겐 싸늘하고 차가운 언어만이 전달될 뿐이다. 어머니 자체인 650유로 돈이 전부인 그가 거리 지하철역 앞에서 들은 한 청년의 기타반주노래인 ‘노킹 온 헤븐스 도어’(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것)나 그가 머문 ‘푸아에 쎬라’(즐거운 분위기의 휴식공간이라는 뜻) 난민보호소, ‘굿슬립’(Good Sleep) 호스텔의 제목이 내포한 뜻이 대책 없는 슬픔과 병적인 불안감, 생계라는 절박함의 곤경에 처한 이주자를 비참하게 만듦으로써 이 도시와 더욱 거리감을 갖게 한다. 화려한 누브거리의 자본주의 풍요로움과 꿈결 같은 낯선 공간에 놓인 로는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야 하는 키작고 왜소한 동양인 남자일 뿐이다. 탈북자 출신이자 왜소한 신체조건은 문화적 소수자로서 열등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행여 붙잡힐까봐서 도강할 때 신분증, 공민증, 출생증, 학교입학증을 버려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로는 그 때문에 난민<sup>24)</sup>의 지위를 받기 어

24) 난민(refugee)이란 더 이상 자국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국을 이탈한 존재로 국적국에 대한 충성관계를 포기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외교적 보호

렵게 된다. 경계 지어진 영토를 갖는 민족국가 체계에서는 한 인간의 법적 지위가 당국의 보호에 종속되며 이 최고당국은 그들이 사는 영토를 관할하고 또한 그들에게 각종 증명서를 발부함<sup>25)</sup>으로써 국민과 난민을 구분한다. 이러한 국가중심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경 사이의 변방에 머무는 림보(limbo)<sup>26)</sup>적 상황에 처한 로는 난민의 지위와 시민권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망각해야만 한다. 고국을 등지고 떠나는 순간부터 쫓기고 숨어야 하는 범법자가 된 로는 맥도널드 화장실 안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생활을 하다가 꼬마로 오해받아 고아원에 머물게 되는 과정을 거쳐 어렵게 난민지위를 획득한다. 젊음을 탕진하는 호스텔 여행객과 고아원 아이들로부터 폭행과 주먹질, 발길질을 당하는 로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시민권이 있는 흑인여성, 자국민 노숙자, 돌아갈 곳이 있는 여행객, 어른으로 취급되지 못해 아이들에게조차 폭행당하고 차별 받는 탈북이주자는 함부로 대해지며 존엄성을 잃는다. 희생양으로 취급 받는 로는 브뤼셀 사람들 경계 밖에 서있는 비존재이자 유럽공동체에 동화되지 않는 낯선 존재이다. 인간과 시민의 동일성, 출생과 국적의 동일성을 깨뜨리며 국가-국민-영토라는 낡은 삼위일체를 파괴한다는 이유<sup>27)</sup> 때문에 난민은 국민국가 질서에 위협하는 걱정스러운 대표자이자 이해불가능하고 순화도 불가능한 타자 즉 괴물로 표상<sup>28)</sup>되고 있다.

언어, 문화, 민족, 인종, 계급의 타자인 로는 유럽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존재를 밝힐 어떠한 서류나 관계맺음도 없이 절대소외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홍수, 해일, 가뭄, 태풍 등으로 이 삼백만 명이 아사했던 고난의 행군을 체험한 로는 살기 위해 북한을 탈

---

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한다. 즉 정치적·외교적·인종적 기타의 이유에 의해 본국의 박해로부터 도피하여 외국에 보호를 구하는 망명을 뜻한다. - 한원균, 「탈북자문제의 소설사회학」, 『탈북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3, 84쪽.

25) 세일라 벤하비브, 이상훈 역, 『타자의 권리』, 철학과현실사, 2008, 81쪽.

26) 라틴어로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 있는 연옥 즉 지옥의 변방을 뜻함

27)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 외역, 『목적 없는 수단』, 난장, 2009, 32쪽.

28) 서경식, 앞의 책, 80쪽.

출했으나 어머니를 잃고 홀로 먼 타국에서 정처 없이 떠돈다. 노숙자, 난민, 이주노동자보다도 못한 인간조건을 지닌 탈북청년은 3년전 낫선 거리를 헤매며 생명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갖고 산주검(Undead)으로 살아야 했다. 그후 난민신청서를 위한 사진촬영, 지문채취, 신체검사, 면담을 통해 로는 자신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까지 노출하며,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게토이자 절대적인 생명정치적 공간<sup>29)</sup>인 수용소에 머문다. 지구 위에서 장소를 잃은 난민들이 감금되어 있는 수용소야말로 역외지대이자 공동체 게토로서 임시적임의 영속 즉 임시적 상태의 지속<sup>30)</sup>인 것이다. 인간조건에 대한 가장 타당한 샘플로 여겨지는 수용소라는 공간은 인간의 도덕성에 관련된 이기심, 사랑없음, 편협함의 딜레마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sup>31)</sup>이다. 반강제로 추방되어 지구 위를 떠돌다가 수용된 로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세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

22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난민지위를 획득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얻은 로는 중국식당 진산화에서 만난 필리핀 출신의 라이카가 강제 추방되는 위기를 맞이하자 또다시 불법신분이 되어 영국으로 피신한 그녀를 찾아 떠난다. 라이카와의 관계는 북한을 떠나 어머니와 모든 증명서류를 잃어 존재감을 상실한 로가 유럽에서 맺은 친밀한 관계이자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시켜주는 관계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하는 필리핀여성은 ‘세계의 하녀(global servants)’로 명명되며, 국경 없는 노동자 역시 ‘제7의 인

29) 수용소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내부와 외부, 예외와 규칙, 합법과 불법이 구별되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서는 것이며, 거기서 개인의 권리나 법적 보호라는 개념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 조르조 아감벤, 앞의 책, 322쪽.

30) 바우만은 난민들의 불안정성과 역외성을 오제의 ‘비-장소’, 가로의 ‘역외지대’, 미셸 푸코의 ‘바보들의 배’ 같은 어디에도 없는 곳(nowhere)으로 즉 “홀로 존재하며, 자체 내로 닫혀 있으며 동시에 무한한 바다에 내맡겨진 채 이리저리 떠도는 장소 없는 장소”로 내던져진 것이라고 말한다. - 지그문트 바우만, 권태우 외역, 앞의 책, 302쪽.

31) 랭던 길키, 이선숙 역, 『산동수용소』, 새물결플러스, 2013, 427-431쪽.

간'으로 취급<sup>32)</sup>되기에 로와 라이카는 타자성이라는 소수자로서의 동질감으로 결합한다. 유럽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권리와 지위에서 배제된 이방인의식의 공유인 것이다. 지구상에 어느 누구와도 관계 맺지 못하고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한 로는 또다시 외롭지 않기 위해 어렵게 얻은 난민지위마저 포기하며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한다. 로는 내부에 포섭되거나 순응하지 않고 극한의 삶에 도전하는 자발적 선택으로 스스로를 타자화시킨다.

벨기에에서 탈북자 기사를 쓴 『H』기자에게 소개받은 '박' 또한 한민족 디아스포라이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을 판별하여 난민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박은 물심양면으로 로를 지원한다. 북한 평양 출신으로 모친과 월남했으나 의대를 다니던 시절 정치사건에 휘말려 도피성 유학을 한 후 파리와 브뤼셀에서 외과전문의 생활을 한 60대 후반의 박은 디아스포라적 운명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으며 아내의 안락사에 동조한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태어난 북한이나 성장한 남한에서 살지 못하고 유럽을 떠든 박은 의사생활을 그만둔 후 한인공동체에 소속되어 이주자를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모호하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닌 디아스포라는 식민주의의 거만함,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을 타국에서 겪는다. 출신이나 출생이 국가의 토대가 되기에 박은 법적·심정적·존재론적으로 진정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신산한 삶을 영위한다. 그의 인생 여정은 탈북청년의 생존을 위한 필사의 탈출과 정착과정을 후원하는 경계인과 이방인의 삶이 나타난다.

소설 후반에 이르러 '로' 혹은 'L' 그리고 '박'이라고 불리는 디아스포라들은 '로기완'과 '박윤철'의 풀네임을 찾는다. 이주자는 거주국에 도착할 때마다 여러 개의 이름을 갖게 됨<sup>33)</sup>으로써 정체성의 혼란과 분열을

32) 기계형,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아시아여성연구』제49권, 2010, 264쪽.

33) 탈북자, 입양아, 자이니치, 난민 등 디아스포라의 다양하고 혼종적인 이름을 통해 이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착하지 못한 채 계속 변형되고 있는가

겪는 다양성과 다국적성이 표식되는데 비해 이 소설에서는 김작가인 ‘나’와의 관계성이 중시되므로 이름까지 찾는 과정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존재감이 확인되며, 나와도 무관하지 않게 된다. 이니셜로 시작되는 익명적 관계에서 완전한 이름을 얻게 되면서 로와 박은 나와 연대하며 이방인 정체성을 공유한다. 이 소설은 로의 여정을 추적함에 있어 과장이나 극적인 전개 없이 담담하고 냉정하게 일상과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이는 영토 밖에 내몰린 비극적 인간형의 실존을 주관이나 감성을 배제한 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 때문이다. 작가는 정주를 허락받지 못한 탈북디아스포라의 고통과 고난을 일체의 동정 없이 독자와 동행하는 여행을 한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난민이나 무국적자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지거나 최소한 법적 인격 정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요청<sup>34)</sup>을 하고 있다.

### Ⅲ. 김작가인 ‘나’의 상처치유와 글쓰기로서의 여행서사

이 작품은 대상인 탈북자 로에 관해 서술한 이야기이자 그를 만나러 간 ‘나’에 관한 이야기로 읽히는 소설<sup>35)</sup>이다. 김작가라는 사회적 이름으로 호명되는 나는 시사주간지 『H』가 마련한 국제란 특별기사<sup>36)</sup>에 실린

---

를 알 수 있다. - 이미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 나타난 예술·사랑·국가」, 『세계한국어문학』 제4집, 2010, 106쪽.

34) 세일라 벤하비브, 앞의 책, 82쪽.

35) 박덕규 외,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327쪽.

36) 작가 조해진의 여행동기이자 창작계기가 된 이 기사는 2006년 1월 10일 『한겨레21』에 실린 “벨기에에서 탈북자를 만나다”라는 도종훈의 기사로서 로의 모델이 된 탈북자 A(23)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160cm의 왜소한 외모와 탈북도강 과정, 20여명의 이주자와의 탈국경, 한국대사관과의 접촉 등이 소설의 내용과 일치하며, 탈북자들의 벨기에 정착을 도와주는 기사 속의 원용서(68)도 박의 모델이 되는 등 많은 부분을 이 기사에서 차용하고 있다.

탈북자 이니셜 L에 대한 사연을 접한 후 그를 만나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실은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담당피디 류재이와의 결별 그리고 방송출현 예정이었던 윤주의 악성종양제거수술로부터의 도피가 여행동기이다. 그러나 실연과 윤주문제는 여행을 추동하는 계기일 뿐 “한번 전과를 타고 난 후에는 누구도 다시는 들춰보지 않는 종이뭉치”인 일회용 방송원고가 아닌 글을 쓰고자하는 창작욕구가 깔려있으며 글을 써보고자 하는 집필여행이라는 점에서 소설가소설<sup>37)</sup>로도 읽힌다. 방송용 대본이 아닌 소설을 쓰고 싶은 열망에서 시작된 《로기완을 만났다》는 동반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어 독자와 함께 탈북청년의 여정을 추적한다. 나의 현실도피는 브뤼셀 북역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의 ‘보갈리즈’를 듣게 되면서 이 곡이 연인 재이의 차 안에서 자주 들던 익숙한 곡임을 떠올리며 자신이 현실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3년전 로도 들었을 것이기에 이 곡은 과거와 현재, 연인과 탈북청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오른쪽 뺨과 턱을 감싸는 얼굴만큼 커다란 흑이 난 17살 고아소녀인 윤주를 돕기 위해 방송날짜를 성급이 많이 모이는 추석연휴로 미루었지만 그 사이 악성종양으로 바뀌게 되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도피하듯이 한국을 떠난다. ‘L’과 ‘로’로 불리는 로기완의 슬픔과 굴종, 고통을 추체험함으로써 이방인의식을 온몸으로 깨닫는 나는 브뤼셀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잡지 기사를 쓴 기사를 만나 ‘박’을 소개받아 로에 대한 정보와 소식을 듣는다.

소설의 주인공인 로의 이니셜과 흔적만으로 역추적하는 나는 3년전 로가 머물던 장소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그가 느꼈던 상실감과 좌절감,

37) 90년대 소설가소설의 집단적 대두는 우리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설가소설은 새로운 글쓰기 방향을 모색하려는 작가정신의 지향과 장르의 확산을 특징으로 한다. - 정찬영, 「소설가소설의 존재방식」, 『인문논총』제49권 제1호, 부산대학교, 1996, 196쪽 - 90년대 소설가소설은 2000년대 이주 모티프와 혼효되면서 여행소설과 디아스포라소설의 형태를 수용하는 양상을 띤다.

이방인으로서의 소외와 공포, 사회로부터의 배제, 불안정한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느껴보고 체험해 본다. 소설가란 작품 속 주인공의 영혼과 육체에 투사되고 몰입 혹은 빙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듬거리며 ‘브, 튀, 썰’을 받음해 보고 로에게 싸늘하게 대했던 호스텔 청소부를 노려보거나 화장실 식사체험과 구토를 흉내 내는가 하면 그에게 함부로 대했던 백인남자 여행객에게 저항하고 분노하며 그의 고통과 신음을 이해하고자 애쓰지만 완벽한 공감은 불가능함을 깨닫고 창작의 어려움도 느낀다. 20여일의 브뤼셀 체류 동안 여행자가 느끼는 피로감과 동양인에게 갖는 무시와 경멸, 이에 대한 분노 표출, 박에 대한 상념, 운주를 향한 걱정 등의 시련 속에서 나는 한 편의 글을 기록해나간다.

로의 경험을 체험해 보고 상상한 후 소설을 쓰는 나는 로와 내가, 박과 로가, 로와 운주가, 나와 박이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타인의 절망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공감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나간다. 어머니의 시체를 판 로처럼 모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박은 트라우마를 공유하며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독학으로 대학을 나온 나는 반지하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며 얼굴에 있는 큰 혹 때문에 타인의 무분별한 시선을 받는 여고생 운주의 슬픔에 공감하며 그녀를 돕는다. 로의 공포와 분노, 고독과 불안은 운주의 불행 혹은 아픔과 닮아 있으며, 박과 나의 상실감 또한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는 동질감을 형성한다. 아버지의 사망, 엄마의 가출, 여동생의 행방불명으로 세상에 홀로 남아 배타적 시선을 감당했던 한국에서의 운주는 왜소한 체격으로 탈북한 불법체류자이기에 무시와 경멸, 자신을 향한 과장된 경계심과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벨기에에서의 로인 것이다. 또한 아내에 대한 죄책감으로 의사생활을 그만둔 박은 운주에 대한 책임감으로 방송작가생활을 그만두고 도망치듯 떠난 나이이다. 디아스포라는 국경을 넘으면서 자신이 타자로 위치 지어지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주변인들과 동병상련을 느끼고 연대의

식<sup>38)</sup>을 갖는다. 나이와 성별과 국적과 직업은 다르지만 로와 박과 윤주와 나는 이방인이자 난민으로서의 동질감을 형성하며 타자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문제점도 해결한다. 난민이란 난민캠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며 근대국민국가의 약속 즉 인권이나 생존권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국민국가의 법 외부로 쫓겨난 자들로 확대해석<sup>39)</sup>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뤼셀에서 윤주의 수술 소식을 전해 들은 나는 로와 그의 연인 라이카의 사랑을 통해 재이와의 관계도 풀어나간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타인의 상처와 고통까지도 이해하는 문학적 상상력이 요구되지만 로의 생사여부와 어머니 상실, 박의 디아스포라적 삶, 윤주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데 한계를 느끼며, 작가로서의 능력에도 회의를 느낀다. 로기완이 남긴 일기, 사진, 증명서류를 갖고 그의 벨기에 체류생활을 상상과 추적만으로 집필하는 나는 자신의 상처와 로의 상처, 고국을 등지고 이국땅에서 살고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인 박의 상처와 중첩되고 혼효된다. 이야기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다거나 로가 타인인 이상 완전한 이해의 불가능함을 호소하는 이 작품은 소설 속의 소설쓰기이다. 로의 여정을 상상할 땐 ‘~했을 것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의 어미를 구사하며 동반의 시점으로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로의 고통을 느끼도록 이끈다. 잡지 기사를 토대로 ‘로’라는 인물을 구상함에 있어 “나는 상상의 영역에서만 완성”할 수 있다든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쓸쓸한 장면 중 하나”라든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라는 서술로 탈북 디아스포라의 심리와 외양을 객관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3년전 로의 삶을 여행하는 작가는 직접 경험해 보는 방식<sup>40)</sup>의 글쓰기를 하고 있다.

38) 이선주, 앞의 책, 10쪽.

39) 서경식, 임성모 외역, 앞의 책, 204쪽.

40) 작가는 실제로 시사잡지 기사를 읽고 2007년 브뤼셀을 가서 탈북자의 행적을 취재하고 경찰서에서 쓴 진술조사를 읽었으며 완벽한 이방인에 대해 써보고 싶

선협적 고향 상실성의 표현으로 문제적 개인이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sup>41)</sup>이라는 루카치의 명제를 실현시키는 이 소설은 문학의 영원한 주제인 정체성 확인을 위한 자신의 존재증명에서 출발한다. 타인에게 ‘김작가’로 불리는 나는 회사명, 명함, 출생과 죽음, 결혼과 건강이 기록되어 있는 관공서 서류, 기념사진, 여권 속의 스탬프, 열쇠 등으로 정체성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회의적이며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자기증명이 불가능한 탈북자의 정체성을 탐색한다. 한 인간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서류는 너무도 미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로야말로 비극적 인간형이자 문제적 개인이다. 21세기 유동성의 시대에 유령, 난민, 국민의 경계를 통한 정체성과 존재감의 문제가 다시 부상한 이유는 시민과 디아스포라 사이에 낀 경계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가는 신분증과 등록제도를 통해 국민과 비국민의 법적 경계를 확정하며 시민들의 물리적 안전, 경제적 복지, 문화적 동질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절대주권을 주장<sup>42)</sup>한다. 자기발견이나 허무주의, 자아와 세계와의 대결이나 불화를 그린 이전 소설에 비해 최근 소설에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법적 문제와 귀속감, 구성원 지위, 미등록체류, 성원권/인권문제를 통해 최악의 인간조건을 지닌 난민, 불법체류자, 이주자의 정체성을 다룬다. 비시민인 로나 시민권이 있는 박은 계속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공유하고 거주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비시민의 심상을 가지며 거주자로서의 사회적 권리를 갈망<sup>43)</sup>한다. 로기완이 머문 벨기에 공항, 북역, 푸아에 쉐랄 난민보호소, 굿슬립 호스텔 308호, 맥도널드 화장실, 고아원, 외국인사무국, 월유에 썩 뻐에르 수용소,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 로의 아파트, 진산화 중국식당, 브뤼셀 거리들 그리고 런던의 취안팅취 중

---

었다고 한다. - 「탈북청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 2011.5.3.

41)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철당, 1985, 47쪽, 103쪽.

42) 최중렬, 『지구화의 이방인들: 섹슈얼리티·노동·탈영토화』, 마음의 거울, 2013, 183-184쪽.

43) 이선주, 앞의 책, 9쪽.

국식당을 탐방하고 집필하는 동안 타자성과 디아스포라 상황을 공유하는 나는 로기완의 삶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왔음을 깨닫는다.

타인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서로의 삶 속에서 개입되는 순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브뤼셀에 와서 로의 자술서와 일기를 읽고 그가 머물거나 스쳐갔던 곳을 찾아다니는 동안, 로기완은 이미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니 이제 나는 로에게도 나를, 그 자신이 개입된 내 인생을 보여줘야 한다. 로기완이 내 삶으로 걸어들어온 거리만큼 나역시 그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다.<sup>44)</sup>

작가는 이 소설이 “너무도 외로웠던 한 사람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내 여정을 담은 글”로 “소설이라기보다는 일기에 가까운 글”임을 고백한다. 로를 쫓는 여행은 소설을 쓰는 과정이므로 작가 스스로도 소설과 일기, 현실과 허구를 탈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창작노트이자 한 편의 완결된 문학작품이며, 이방인에 대한 성찰이자 자기고백의 글이기도 하다. 익숙한 곳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탈주한 여행자와 추방당한 이주자는 상처와 불안함과 존재감 부재 등을 공유하며 접촉한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눈물까지 애뜻함의 시선으로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글을 쓰는 이유라고 말하는 작가는 문학적 사명을 피력한다. 창작과정의 여정을 그린 《로기완을 만났다》는 소설이란 내면성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알아보려는 모험의 형식이자 모험을 통해 자신을 시험하고 또 자신을 견디어내면서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발견하려는 영혼의 이야기<sup>45)</sup>라는 점에서 내적 형식뿐만 아니라 외적 형식마저도 길의 형식, 여행구조로 이루어진다. 여행, 입문, 이방인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sup>46)</sup> 이 소설은 작가의 글쓰기를 통한 자기수련과 상처치유라는 자기성장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로와 일체감을 느낌으로써 작가란 그가

44)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 창비, 2011, 172쪽.

45) 게오르그 루카치, 앞의 책, 115쪽.

46) 미셸 마페졸리, 최원기 외역, 『노마디즘』, 2008, 227쪽.

표현하는 언어가 비록 모국어일지라도 항상 그 언어 속에서 이방인과도 같아야 하며<sup>47)</sup> 탈주선을 추적하는 소수자적 입장에서 글을 써야한다는 들뢰즈의 문학관을 반영한다.

경직된 자세로 천천히 돌아선다. ‘그것’이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 보고 있다. 쭈그리고 앉아 ‘그것’, 누군가의 귀 한 쪽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그 때, 바로 너였구나. 속삭이며, ‘그것’ 쪽으로 손을 내밀어 본다. 세상 사람들의 발설되지 않은 이야기만 들으러 다니는 이상하고 가엾은 귀, 짝을 잃어 외로운, 영원히 세계의 오른쪽을 향해서만 가야 하는 외골수의 귀. 영롱한 샘물을 뜨듯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귀를 담아와 가슴에 안아 본다. 아직 한번도 해보지 못한 고백을 오늘밤 이 귀에게만큼은 속삭인 데도 나쁠 것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라껍데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아이처럼 나는 그 귀에 바짝 입술을 댄다. 이제, 나만의 진짜 숨을 불어넣으면 된다.<sup>48)</sup>

작가의 사명은 유행처럼 침묵하는 소수자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일이며, 수술로 잘린 오른쪽 귀가 끝내 하지 못한 말, 그 말을 듣기 위한 역할인 것이다. 이 작가는 육체적으로 죽어 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만 쓰는 타자의 소설<sup>49)</sup>이 특징이며 타자들이 다 하지 못한 말을 대신해주는 것이 글쓰기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랑고백에 인색했던 재이와의 미성숙한 관계에 대해 듣고 대답해주는 귀를 가져야 하며 타인의 내면 속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어야 하는 일이기에 소설가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타자와의 공감 및 유대능력이 필요함을 확인한다. 여행의 끝무렵에 윤주와 통화한 나는 “미, 안, 해”라고 읊조리면서 윤주의 흐느낌을 통해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의식에서 벗어난다. 자신에게 글을 쓸 수 있는 공간과 로의 자료들을 제공한 박과 헤어지

47) 질 들뢰즈, 김현수 역, 『비평과 진단』, 인간사랑, 2000, 195쪽.

48) 조해진, 앞의 소설, 168쪽.

49) 신형철, 「나는 타자다」, 『천사들의 도시』, 민음사, 2008, 243-244쪽.

면서, 작가는 안락사한 아내에 대한 상처 때문에 고통당한 그를 포용해 주고 위로해 준다. 외모가 닮았고 글을 쓰고 싶어했던 아내와 나를 동일 시했던 박의 상실감과 슬픔에 동참하며 아프지 않았다는 아내의 마지막 말을 듣고 싶어했던 그 한마디를 대신해 준 나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로인 박의 쓸쓸하고 신산한 삶을 공유한다. 그리고 런던의 한 중국식당에서 환하게 웃으며 체온이 있는 두 손으로 덥석 내 손을 잡아주는 주인공과 해후하며 여행과 소설은 마무리된다. 박의 얼굴을 쓰다듬는 손길과 포옹 그리고 로와의 손접촉을 통해 디아스포라와 탈북이주자와 여행자는 하나가 된다. 피부는 무한 또는 절대적 타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지평이며 피부의 접촉이라는 관계 속에서 타자를 향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파악되는 주체<sup>50)</sup>가 되는 것이다.

탈북청년 로를 추적하는 과정은 문학의 테마인 정체성과 존재감의 의미를 천착하는 일이다. 작가에게 로라는 한 인간과의 연대의식과 글쓰기로서의 낙서, 일기, 수필과 같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드러내는 자기지향적인 글, 개인적 성격의 글은 치료적 의미<sup>51)</sup>를 지닌다. 자기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생각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문학치료(Literatherapy)<sup>52)</sup>로서의 창작과 여행이 작가에게 치유가 되는 것이다. 여행과 글쓰기를 통해 작가는 로와 박과 윤주의 상처뿐만 아니라 재이와의 관계도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간다. 로의 삶에 관여하거나 그를 돕는 박과 나의 행보는 곧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는 일인 것이다. 작가적 자세란 소수자인 로의 험벗고 고통받는 얼굴을 통해 역지사지와 동병상련의 감수성과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의성으로 응답하는<sup>53)</sup> 타자의 윤리학을 지니는 것이다. 타자의 얼굴을 도외시하지 말고

50) 서동욱, 「피부 주체」, 『문학과 사회』 제21권, 2008. 겨울호, 353쪽, 373쪽.

51) 박영민, 「쓰기 치료를 위한 개인적 서사문 중심의 자기표현적 글쓰기 활동」, 『한어문교육』 제27권, 2012, 37쪽.

52)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7, 33쪽.

53) 박태범, 「프랑스 포스트모더니즘의 인문학적 사유에 대한 기초신학적 이해」, 『가

그 얼굴에 응답해야 하며 그 응답은 윤리적 책임으로 이어져 그의 존재를 책임져야 한다. 이는 또한 ‘외국인’, ‘무국적인’, ‘경계인’, ‘이방인’, ‘불법체류자’라는 다중의 소수적 정체성을 지닌 로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상처치유가 요구되는 여행에 지친 여행자인 나나 고향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박의 얼굴이기도 하다. 소설이란 하나의 자서전이며 동시에 사회적 역사로서 루카치가 말했듯이 작가의 윤리가 작품의 미학적 문제가 되는 유일한<sup>54)</sup> 문학 장르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불법체류 신분인 로와 상처투성이인 나의 문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연대감은 치유와 성장의 결과를 가져오고 여행과 글쓰기도 끝난다.

#### IV. 유령·난민 정체성을 지닌 지구촌 이방인들

《로기완을 만났다》는 디아스포라 운명을 지닌 탈북청년의 존엄성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방인이 되어서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 대한 글쓰기와 여행을 하는 작가는 자신과 이주자 로기완을 이방인 정체성을 지닌 타자로 인식한다. 짐멜은 이방인을 객관성과 자유를 결합시키며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sup>55)</sup>이자 질문자, 더 개화된 자와 같은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하지만, 현실 속의 그들은 위험한 자, 질서를 교란하는 자, 범죄자, 국외자, 쓰레기, 잉여인간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다. 고국에서 살 수 없어 도망친 이주자는 입국이 거부되는 지구상의 미미이자 사회적으로 좀비이며 과거의 정체성은 유령으로만 살아남는 비존재이다. 국민, 국가, 자본, 영토, 출신에서

톨릭신학』제21권, 2012, 109-110쪽.

54) L.골드만,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80, 17-19쪽.

55) 이용일, 「다문화시대 고전으로서 짐멜의 이방인 새로 읽기」, 『독일연구』제18권, 2009, 193쪽.

벗어난 이주자는 시민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떠도는 난민들이다.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증(證)’과 ‘적(籍)’이 없는 이들은 타자의 표상으로 최근 문학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작가는 로의 행적을 역추적하고 추체험 하면서 한 편의 장편소설을 완성해 나간다. 소설이 진행될수록 이주자의 절망과 공포는 고아소녀인 윤주, 한민족 디아스포라인 박,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여행자인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전해지면서 소수적 연대를 형성한다. 배제와 포섭의 이분법적 위치에 현대인을 위치시키는 21세기 탈국경과 이동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이방인이 유령처럼 떠돌며 부유하고 있다. 지구촌 사회는 배척이 심하고 배려가 부족한 공동체로서 다문화주의, 톨레랑스, 타자지향성, 타자의 권리라는 공허한 말들이 유행되고 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상처받는 사람들의 관계맺음을 통해 인간다운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며 등장인물 간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자기 자신이 소수자이자 타자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시대의 가장 비참하고 남루한 탈북청년 로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인 박의 모습이자 윤주와 내안의 타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령처럼 출몰하는 이주자, 난민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며 유동하는 시대의 현대인은 로나 윤주처럼 이방인의식, 고아의식을 지닌다.

한 달여간의 여행은 그 어느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낯선 공간에 놓여 타자와 대면하면서 인간과 사랑의 정체성, 상처치유, 자기수련, 글쓰기를 통한 작가적 입문, 로와 윤주의 성숙이라는 입사의식을 통과한다. 나와 재이와의 갈등과 결핍도 로와 라이카, 박과 그의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간다. 여전히 로는 불법체류라는 불안한 신분상태에서 삶을 영위하겠지만 그의 결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가 역시 글쓰기라는 천형의 직업으로 고통스러워 하겠지만 삶은 계속되는 것이다. 서울-브뤼셀-런던-서울의 여정을 끝내며 작가는 여행, 글쓰기, 입문, 성숙, 발견 등의 성과를 얻고 완결된 한 편의 소설을 들고 귀환한다. 다문화, 이동성, 이주라는 우리 시대의 화두는 전지구적인 현상이 되었고, “살아

있고, 살아야 하며, 결국엔 살아남게 될 하나의 고유한 인생, 절대적인 존재, 숨쉬는 사람”인 탈북디아스포라의 모습을 통해 작가의 삶의 윤리가 소설의 미학적 형식인 여행서사로 구현되고 있다. 여행소설이자 탈북소설인 《로기완을 만났다》는 유동하는 다문화·다원화 시대에 작중인물의 화자로 등장한 소설가의 상처치유와 통과제의를 성찰하며 지구촌 소수자의 고통과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참고문헌

### 연구대상작품

조해진, 『로기완을 만났다』, 창비, 2011.

도종윤, 「벨기에에서 탈북자를 만나다」, 『한겨레21』, 2006.1.10.

### 논문

고정갑희, 「여자들의 공간과 자본」, 『한국여성학』제21권, 2005, 5-37쪽.

기계형,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아시아여성연구』제49권, 아시아여성연구소, 2010, 257-266쪽.

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을 위한 이론적 정초」, 『한국사회학』제38집, 한국사회학회, 2004, 1-29쪽.

김동환, 「소설의 영원한 내적 형식: 길 그리고 여행」, 『소통과 인문학』제11집, 한성대 인문과학연구원, 5-23쪽.

김애령, 「이방인과 환대의 윤리」, 『철학과 현상학 연구』제39권, 한국현상학회, 208, 175-205쪽.

박영민, 「쓰기 치료를 위한 개인적 서사문 중심의 자기표현적 글쓰기 활동」, 『한어문교육』제27권,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31-51쪽.

박태범, 「프랑스 포스트모더니즘의 인문학적 사유에 대한 기초신학적 이해: 질 들뢰즈와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가톨릭신학』제21권,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12, 77-128쪽.

이미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에 나타난 예술·사랑·국가: 구효서의 <<랩소디 인 베를린>>론」, 『세계한국어문학』제4집,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97-127쪽.

조윤경, 「현대문화에 있어서 노마디즘과 이동성의 의미: Attali와 Maffesoli의 논의를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제66권, 한국불어불문학회, 2006, 325-353쪽.

최성희, 「폭력의 기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과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새한영어영문학』제52권, 새한영어영문학회, 2010.

### 단행본

강영안,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2005.

박덕규 외, 『탈북디아스포라』, 푸른사상, 2012.

서경식, 김혜신 역,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2006.

서경식, 임성모 외역, 『난민과 국민 사이』, 돌베개, 2006.

세계한국어문학회 비평숲길, 『디아스포라와 한국문학』, 역락, 2012.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출판부, 2004.

이미림, 『우리시대의 여행소설』, 태학사, 2006.

이선주, 『경계인들의 목소리』, 그린비, 2013.

이택광, 『마녀 프레임』, 자음과모음, 2013.

최종렬, 『지구화의 이방인들: 섹슈얼리티 · 노동 · 탈영토화』, 마음의거울, 2013.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85.

데이비드 브룩스, 형선호 역, 『보보스』, 동방미디어, 2001.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1998.

랭던 길키, 이선숙 역, 『산동수용소』, 새물결플러스, 2013.

리처드 J 번스타인, 김선욱 역,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 아모르문디, 2009.

세일라 벤하비브, 이상훈 역, 『타자의 권리』, 철학과현실사, 2008.

자크 데리다,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자크 아탈리, 이효숙 역,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웅진닷컴, 2005.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 외역, 『목적 없는 수단』, 난장, 2009.

- 지그문트 바우만, 권태우 외역, 『리퀴드 러브』, 새물결, 2013.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역, 『액체근대』, 강, 2009.  
지그문트 바우만, 장일준 역, 『쓰레기가 되는 삶들』, 새물결, 2008.  
지그문트 바우만, 함규진 역, 『유동하는 공포』, 산책자, 2009.  
질 들뢰즈, 김현수 역, 『비평과 진단』, 인간사랑, 2000.



<Abstract>

## Stranger Groups, Migrants, and Travelers in the Age of Mobility

- With a focus on *I Met Ro Gi-wan* by Jo Hae-jin  
(Changbi, 2011)

Lee, Mi-Rim\*

In the age of mobility when trans-border movement has become part of daily life, migrants and travelers that attract attention as the traces of minority group and the representations of others are appearing around the global village as if they were specters. Reflecting such a social phenomenon, travel, multicultural, and diaspora novels have been published. Protagonists with the identity of alien or marginal person have also made their way to such works, reflecting the phenomenon. In *I Met Ro Gi-wan* by Jo Hae-jin, “I,” a former scripter, follow the track of “Ro,” a young male North Korean defector, throughout Belgium and London. In the process of travel, I empathize and identify with Ro, an international missing person, social zombie, and non-being with no “certificates,” healing my own wounds and passing the rite of passage as a writer. I join together with Ro, a North Korean defector metaphorically considered as the lowest and basest others in the 21st century, Park of Korean diaspora, and Yun-ju, a 17-year-old girl that is an orphan discriminated for her horrible face, thus finally realizing that I am the very minority group

---

\*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of refugee, orphan, illegal alien, diaspora, and novelist. The author presents the others-oriented attitude to respond to and welcome the faces of others, which include the suffering of Ro, a migrant that has lost his mother and motherland, the pain of diaspora Park that assisted the euthanasia of his wife, and the despair of Yun-ju that has to endure incredible misery at a young age. The author also presents a literary view to write in the shoes of minority groups. Not forming any relationship to prove himself after losing his family and wandering outside the earth, Ro tries to take back his dignity and present as a human being through his full name Ro Gi-wan and his connections with a lady he loves. The author feels the difficulty of creation and the limitations as writer in the process of reverse tracing and indirectly experiencing his suffering, pain, and sadness but manages to complete a novel by transferring his soul to Ro, the protagonist of his story, and projecting himself onto him. The author and speaker of the story faces and personally contacts the innocent smile of diaspora of North Korean defectors that should survive even in spite of the worst human conditions and completes his wandering as a rite of passage through the rights of minority groups, the journey of human identity, wound healing, and self-training, and the mobility of migration. The novel talks about human rights, arguing that even 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oints of orientation and consciousness of goals between the migrant North Korean defector and the travelling novelist, we should eventually take the issues of minority groups as ours in otherness and minority solidarity.

Key Words : motifs for trans-border migration, stranger group,

diaspora narrative, traveling narrative, liquid modern  
society, wound healing, identity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15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

